

방과후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충효교실의 연계활동 방안

양 방 주*

목	차
I. 머리말	IV. 방과후학교와 청소년 충효 교실의 연계 활동
II. 지역사회 청소년 충효교실 의 현황과 과제	V. 맺음말
III. 방과후학교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I. 머리말

오늘날 우리의 교육환경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되어 교육격차의 해소, 저출산과 고령화에 부응하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 사교육비의 경감 등과 같은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야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유사한 정책들을 모아 “방과후학교”라는 방안을 내놓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방과후학교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추진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는 다양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그 일환으로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개발 중에 있다.¹⁾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이미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충효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연계하여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과후학교와 충효교실은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2007. 7. 31), “도교육청, 8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팀 선정”, 교육청소식(인터넷자료)

그 운영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점이 많고 서로 보완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고 그를 토대로 연계활동의 가능성과 의의, 실제 연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물과 제한적 성격을 갖는 공식적인 발표 자료에 의하였기 때문에 창의성의 면에서 그 성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 지역사회 청소년 충효교실의 현황과 과제

1. 청소년 충효교실의 운영과 교육 현황

지역 사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인 충효교실은 지역(리·동) 노인들이 여름, 겨울철 방학기간 동안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고 또 자격을 갖춘 교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기간에 같은 목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교육하고 있어서 사회교육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 교육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노인회는 각 지역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생 단체인데 조직상으로는 대한노인회에 속해 있다. 대한노인회는 1969년에 조직되고 1970년에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고 있는 전국적인 사단법인체로서 중앙회와 지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도 연합회와 지회, 분회, 경로당으로 조직되어 있다. 조직상으로는 이와 같으나 각 노인회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행정적으로는 리·동 단위의 분회가 각 경로당을 지원, 지도 하면서 실질적인 단위 노인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충효교실 사업은 대한노인회의 활동 중의 하나인데 각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는 노인회 사업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전 도(道)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명칭은 노인회 별로 하계(동계) 청소년 충·효·한문·예절교육 혹은 청소년 충·효·한문교실, 청소년 충효교실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 충효교실이라고 부르고 있다.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예절과 충효 사상을 함양시켜 줌으로써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게 하고, 풍부한 경륜과 넓은 식견을 지닌 노인들의 지도를 통해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 사상을 제고하게 하며, 지역 사회의 미풍양속과 유래 등을 알려줌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있다. 부수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통해 노인들의 사회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운영에 대해서 보면 리·동 노인회 별로 경로당, 노인 회관, 마을 회관 등을 이용하여 하계 혹은 동계 방학 중에 (평균 25일간) 매일 1-2시간씩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나 주로 초등학교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35명 정도이다. 교육은 노인회장, 지역원로, 전·현직 교육자 등이 복수로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노인회장과 전직 교육

자가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영비는 주로 도(道)의 지원에 의하는데 비용의 대부분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된다. 주된 교육 내용은 충효 사상, 전통예절, 한문, 서예, 지역 사회의 유래와 미풍양속 등이다. 교육 방법은 강의와 실습, 현장 체험 등에 의하고 있다. 다음은 2007년의 하계 충효교실 시행 계획서이다.²⁾

<2007 하계 충효교실 운영 계획서>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인회명	노인회장	운영기간	학생수	교육과목	교육장소	강사
하귀1리	문원수	7.25~8.24	45	한문, 서예	하귀1리 경로당	전영태
수산리	박형래	7.26~8.27	60	서예, 한문	수산리 경로당	박형래, 강병국
광령1리	이종식	7.23~8.24	60	한문, 서예	광령1리 경로당	김보현, 이용화
함덕4구	고기원	7.25~8.30	50	한문, 서예	함덕4구 경로당	박경시
용포리	고정한	7.25~8.25	40	한문, 컴퓨터, 서예	용포리 경로당	한봉남, 고은용
연동	이창수	7.25~8.24	85	한문, 예절, 영어	연동 경로당	이창수, 홍성표

교육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³⁾ 교육을 담당한 강사들은 대부분 현직 노인회 회장이거나 노인회 회원인 전, 현직 교직자들로 구성 되어있는데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약 65%에 이르고 있으며 연령은 70대 이상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지원하며, 특별한 자격을 두고 있지는 않다. 초, 중,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초등학생들이다. 수강학생 수는 20명 이상 40명 미만이 대부분이다. 최소 수강생 수는 14명이었고 최다 수강생 수는 98명(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이었다. 교육을 신청한 학생수에 대한 최종 수료 학생의 비율은 자발적이고 비보상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양호한 편이다. 80%이상이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70%이상은 (80%이상을 포함) 전체의 70%였다. 최소 수료율은 44%였고 최대 수료율은 96%였다.

2) 이 계획서는 예산 지원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에서(2007년도) 각 노인회의 사업계획을 수합하여 표로 만든 것이며 실제 시행 내용과는 일부가 다를 수 있다.

이 계획서 외에 각 노인회에서 작성하여 시행하는 <새부 교육과정 계획표>의 비교는 생략함.

3) 이하의 내용은 줄고(2005), "제주지역 하계 청소년 충효교실의 예절교육 실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21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의 관련 사항을 본 글의 취지에 맞게 편집한 것임. 특히 통계와 관련된 사항은 위의 자료에 의하였음.

<2007 하계 충효(예절) 한문교실 운영 계획서>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교 실 명	경로당회장	기간	강 사	학생수	비 고
상모2리 대동경로당	강두삼	8.01~8.30	오순환	35	충효 예절, 한문
신도1리 노인회관	김공육	"	김원명	20	
보성리 경로당	강대인	"	임영택	"	
동일1리 경로당	문공일	"	문공일	"	
태흥1리 경로당	한우섭	7.26~8.25	한봉일	"	
세화1리 경로당	강필문	7.30~8.30	강필문, 김천중	"	
세화2리 경로당	김세현	7.24~8.24	김세현	25	
은평경로당	현재영	7.25~8.23	현재영, 강대휴	48	
신산경로당	강희직	"	강희직, 박인평	30	
수산1리 경로당	김윤희	"	김윤희, 김한석	30	
의귀리 경로당	김동수	8.01~8.31	오윤희, 김동수	"	
위미2리 경로당	강달호	8.01~8.30	현봉협	"	
하례1리 경로당	양상선	"	김성수	20	
하례2리 경로당	현권수	7.30~8.24	현승부	"	
중앙동 경로당	현학삼	8.01~8.20	현학삼, 이경백	20	
신효동 경로당	김태규	"	김태규	"	
하효동 경로당	권경수	"	권경수	25	
호서동 경로당	김석규	8.01~8.25	김석규, 허인지, 허인범	20	
강정동 경로당	김대언	7.20~8.22	김대언	30	

강의는 주로 노인회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는데 환경은 좋은 편은 아니다. 강의에 필요한 경비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노인회 사업비로 충당되고 있는데 충분치 못하다. 그밖에 마을회 혹은 청년회, 부녀회와 같은 자생단체나 독지가의 지원에 의해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활동은 특별한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강사가 판단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 내용은 단순히 예절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로 한자, 서예, 심지어는 영어, 컴퓨터 등의 교육을 겸하고 있으며 점차 예절 이외의 다른 내용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 내용 중에 예절교육의 경우 강사들은 기본생활예절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정생활예절을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예절교육의 단계로 보아 가정, 사회에

서 중시하는 경향과 일치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잘 다룰 수 없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바람직하다. 또한 강사들은 예절교육에서 다루는 구체적 내용으로 인사, 호칭, 공중의 예절을 중시하고 있다.

교재는 강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혹은 특별한 교재 없이 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단체에서 발행한 시중의 예절 관련 서적이거나 한자학습교재를 이용하기도 한다.

교수 방법으로는 교재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44%), 시범과 반복 학습(31%), 모범사례를 통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방법(25%)에 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암송 방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주로 강사에 의해 주도되는 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자료의 활용은 교재에 의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재 외에 시청각 자료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의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와 시상은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경우도 한자교육이나 혹은 출석 등의 성과에 따른 시상을 하고 있다.

2. 청소년 충효교실의 성과와 과제

이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우나 도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한 계절에 1개소에 평균 30여 명씩 30여 개소에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 개개인적인 면을 보더라도 많은 강사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특히 예절생활의 면에서 교육을 시작할 때와 달리 강사에게는 물론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인사를 잘하는 등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봐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교육을 받게 된 동기로 초, 중학생 모두 대부분 '스스로 받고 싶어서'를 들고 있어서 교육의 효과 면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것이다.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는 예절교육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들어 대체로 스스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 좋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강사들이 이 예절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실제 생활에서 겪는 예절 문제를 다루어 줌으로써 학생들은 많은 예절을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흥미를 유발하고 감동을 주는 교육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부모에 효도하여 칭찬을 듣게 되고,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자와 서예를 배울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한 응답도 전체의 26%에 달했다.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학생들의 약 80%가 이 교육을 다시 받고 싶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 이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서의 교육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 교육의 부수적인 효과를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충효교실의 운영에 있어서 애로 사항의 첫째는 사회적 관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학부모와 학교 당국의 협조가 부족하여 지방의 경우 학생 모집에 어

려움이 많고 또한 학생들이 사설 학원에서의 수강 때문에 자주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경우가 많아 강의에 지장이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사회의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관련 기관의 지원 부족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이 많아야 학생들에게 충분한 간식 제공, 잦은 체험 활동 등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를 개선 방안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이 교육을 시행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충효교실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성교육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절교육을 중시하고 있는데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예절교육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충수업 성격의 영어교육이나 시험을 대비하는 한자교육, 취미활동인 서예교육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서 때로는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라 대체적인 교육 내용을 정하여 그 순서를 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 경우 다른 교육 내용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시행 지침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그에 따라 교육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 목적과 운영 계획을 포함하는 전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이므로 관련 교육기관에서 기본적인 교육 과정안을 편성하여 제시하면 그를 토대로 각 마을 단위의 노인회에서 지역 사회의 여건, 노인회의 사정, 강사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실정에 맞게 다시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의 내용은 실제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학교교육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도덕성 발달 정도, 희망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예절을 다루는 정규시간의 경우도 대체로 일상생활의 예절을 끌고루 다루겠지만 시간과 환경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실제로 필요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권위 있는 교육기관에서 발행된 어린이용 예절서를 교재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과 활용은 이 교육의 대상이 어린이들이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교수학습 내용의 선정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절에 관한 지식을 다룰 때는 어린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곤란을 느끼고 있는 내용, 학교에서 자세히 다루어 줄 수 없는 내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는 예절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실천 의지를 기르고, 실습을 통해 구체

4) 이 내용은 줄고(2006), "제주지역 하계 청소년 충효교실 예절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백록논총」 제8권 제1호,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의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임.

적인 실천 방법을 익히고, 체험을 통해 실제 생활에 적용해 봄으로서 예절 생활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한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서는 강사가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함으로써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정과 연계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평가와 시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과의 연계교육은 학생들이 이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실습해 볼 수 있고, 부모의 관심과 칭찬을 통해 실천 동기와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학생은 물론 부모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지원 체제 구축은 이 예절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회 자체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또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다. 이 경우 지역사회란 지역의 교육 기관과 관련 행정 기관, 자생단체(마을 청년회, 부녀회 등)와 학부모를 의미한다. 실제로 이 충효교실의 운영은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기관의 교육 장소 제공, 행사 시 시상 지원, 기관 방문 시 협조, 답사 학습 시 편의 제공과 지역 자생 단체 특히 마을 청년회의 도우미 활동, 학부모의 간식 제공 봉사 활동 등이 충효교실의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교육 활동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교육 활동은 주로 초빙된 강사나 노인회원(대부분 노인회장) 등 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만으로는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노인회원들과 지역의 유지, 기관 단체의 관리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 등에게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즉 이들에게 정규 학습, 체험 활동, 행사(개강식, 수료식 등)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강사, 도우미, 참관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가 가능한 사람,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하여 그들이 가능한 시간과 일에 따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가 충효교실의 운영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충효교실의 운영에는 외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매우 많다. 중요한 사안으로는 학생 모집, 전문 강사의 초빙, 교재의 제작 혹은 구입 그리고 기타 학습 기자재의 확보, 교육 환경의 개선, 충분한 운영 경비의 확보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의 관계자, 자생단체의 임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협의체는 충효교실이 개설될 때에 한해서 조직, 활동하는 비정규 단체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Ⅲ. 방과후학교의 현황과 과제

1.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교육 현황

방과후학교(after school)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외의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의 확대 실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⁵⁾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수요자(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이라 정의 되는데 기존에 “방과후교실(초등)”,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06년부터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⁶⁾

기존의 주요 경과를 보면 ‘95년 5월에 5.31 교육개혁과제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처음으로 선정하고 그 이듬해부터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였고, 또 ‘04년 2월에 “2.17 사교육비경감 대책”을 선정하였으며, ‘06년 3월부터 관련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확대 실시하는 배경은 첫째,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점이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좀더 안정되고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개선이 필요해진 점이다.⁷⁾

방과후학교의 목표는 첫째,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둘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셋째,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넷째, 학교의 지역 사회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자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이다.⁸⁾

방과후학교의 대상 단계별 중점 교육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에게는 방과후 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학생에게는 수준별 교과 보충·심화 학습, 특기적성 프로그램. 고등학생에게는 교과 보충·심화 학습,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진로지도. 지역 주민에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다.⁹⁾

방과후학교의 운영 방향은 첫째, 운영 주체의 개방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5) 조난심(2006), “방과후학교와 교실수업 개선의 연계 방안 모색”, 「방과후학교와 교실수업 개선의 연계 방안 모색」,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p. 1

6) 권성연(2007), “방과후학교의 성과 및 발전 방향”, 「2007 방과후학교 성과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p. 7

7) 조난심, 앞의 글, pp. 1-2

8) 권성연, 앞의 글, p. 6

9) 위의 글, p. 6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 중심 운영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확대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창의성·특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학생 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고,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보육에 중점을 두고 중·고등학교에는 무학년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학부모·성인에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셋째, 다양한 인적 자원의 활용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단위학교에서 인정한 모든 강사 즉 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운영한다. 넷째, 탄력적인 시간 운영이다. 이를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방학 및 토요일휴일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교육대상 및 장소의 확대이다. 이를 위하여 그 대상을 희망하는 해당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교생, 학업중단 청소년, 성인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토록 한다. 여섯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일곱째, 평가·환류체제의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체제를 확립하고, 심의와 협의를 통해 운영의 전 과정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결과를 공개한다.¹⁰⁾

방과후학교는('06년 10월 기준)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98.7%)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41.9%에 이르고 있다. 이들을 학교 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39.4%, 중학생의 27.6%, 고등학생의 64.2%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참여 학교와 학생수 모두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결과이다.¹¹⁾

참여 학생들은 월 평균 2.3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강좌 당 월 평균 수강료는 24,000원이다.

총 운영 프로그램의 수는 150,308개이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초등보육 프로그램이 1,747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51,368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4,219개로 총 57,334개이다.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16,575개, 교과 프로그램이 15,160개, 평생교육이 2,038개로 총 33,773개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실업계학교보다 인문계학교에 더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합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11,150개, 교과 프로그램이 46,945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1,106개로 총 59,201개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에서만 행해지는 보육 프로그램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고학년이 될수록 적어지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과 교과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교과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많지 않다.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교과 프로그램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교과 보충수업으로 판단된다. 모든 프로그램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음악 > 컴퓨터 > 미술 > 체육 > 영어, 중

10) 심은석(2006), "방과후학교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 「방과후학교 혁신연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pp. 9-11

11) 이하 방과후학교 현황은 권성연, 앞의 글, pp. 8-10을 요약함.

학교에서는 영어 > 수학 > 국어 > 체육 > 음악,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 영어 > 수학 > 사회 > 과학,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 > 영어 > 수학 > 사회 > 과학 순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다. 위탁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3.3%인 4,889개가 개설되어 있다.

참여 강사 현황을 보면 현직 교사가 101,491명, 외부 강사가 52,706명이다. 현직 교사는 주로 교과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95.5%) 외부 강사는 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62.5%)과 평생교육(60.3%)을 담당하고 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06년도에 시·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905억원을 지원하였고 그밖에 학교 자체의 지원(430억원), 지자체의 지원(231억원), 기업의 지원(20억원)이 이루어졌다.

학부모들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은 만족도 면에서 만족 46.2%, 보통 38.2%, 불만족 12.0%로, 사교육비 경감효과 면에서 효과적 41.2%, 보통 32.6%, 비효과적 23.4%로, 소외계층에 대한 효과 면에서 도움됨 56.2%, 중간 29.0%, 도움 안됨 11.5%로, 지속적 참여 여부 면에서 참여지속 54.4%, 보통 32.8%, 참여중단 9.5%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06년 상반기) 초·중·고교 총 177개교 모두에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였고, 참여 학생은 초등학교가 56.8%, 중학교가 57.7%, 고등학교가 73.9%로 전체 학생수의 60.5%를 차지했다. 학생들은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16,091명),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기타(7,573명), 음악, 체육, 미술, 일어, 중국어(383명) 순으로 참여하였다. 소외계층학생들은 대상 학생의 45.1%가 참여하여 지원을 받았다.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11개교(17학급)이고 참여 학생은 253명인데 수강료를 지원 받은 학생은 68명이었다.¹²⁾

2. 방과후학교의 성과와 과제

오늘날 우리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학교와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이런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첫째, 공교육(학교교육)이 사회적 계층이동의 통로로 원활하게 작동함으로써 사회적 평형자(social equalizer)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 내용에 대한 수요가 개별화, 다양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학습의 편재화(遍在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교수(teaching)에서 학습(learning)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교육인적자원부의 자체평가에 의하면 방과후학교는 그 목표와 운영 방침에 따라 수행되면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¹⁴⁾ 그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학교·급별, 분야별로 다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2006. 8. 25), "방과후학교, 전체학생 중 60% 참여", 교육청소식(인터넷자료)

13) 조난심, 앞의 글, pp. 2-4

14) 권성연, 앞의 글, pp. 10-17

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외부위탁을 높여 나감으로서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여러 형태의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를 위한 기업의 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교육복지가 구현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제 구축, 지역사회단체·기관의 협력에 의한 프로그램의 운영 특히 다양한 외부 인력의 참여 등을 통해 학교의 지역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확산되었고 둘째, 농산어촌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기업의 체계적 지원이 체계화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위탁·연계 운영 사례가 기업의 모범적 사회공헌 사례로 전파되고 있고 셋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청·자치단체와 기업의 지원, 대학생 멘토링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도교육청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 도내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율은 52%로 전국 평균에 비해 10%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의 학원 수강료와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의 차액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수로 환산하여 산출한 결과 사교육비 경감액은 초·중·고교를 합하여 136억원에 이르렀다. 셋째,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¹⁵⁾

방과후학교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과제와 발전 방안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이 도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질 높은 프로그램이 지속적 개발과 우수 사례의 확산(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의 활성화, 지역 특색에 맞는 모델을 창출·확산, 학생의 선택권 확대 등), 수요자의 현실적 요구 충족을 위한 교과 프로그램의 확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담 인력 채용,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참여 교사에 대한 보상,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순회강사 운영 및 학교간 강사의 공동 채용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구현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확대 지원, 도시 저소득층 바우처 전면 실시, 급식을 연계한 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대상 대학생 멘토링을 한부모·다문화 가정으로 확대, 토요 휴업일·방학 중 프로그램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 혁신과 인적자원의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육 서비스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학생의 직업 능력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⁶⁾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2007. 3. 7), “방과후학교 운영, 사교육비 136억원 경감 효과 거둬”, 교육청소식(인터넷자료)

16) 권성연, 위의 글, pp. 20-24

실제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성과에 대해 고무적이며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연구 발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⁷⁾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방과후학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와 직원의 업무 증가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 생활지도등 그밖의 교사 교유의 업무에 대한 지장과 학교 당국의 시설 및 비품 관리의 어려움 등이다. 이는 방과후학교를 시행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전담 행정 요원의 배치, 참여 교사에 대한 충분한 보상, 수강생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외부 위탁 기관에 회계관리 등의 업무도 함께 위탁, 전용 특별교실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외부 강사의 확보 및 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대체적으로 자격을 갖춘 유능한 외부강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 강사 인력풀 시스템 구축, 연수의 실시, 적절한 강사료의 보전, 특수 신분의(전·의경 등) 지역 멘토링 참가자에 대한 배려, 전담 보육교사의 임용과 강사료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도서 산간지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특이한 것으로는 방과후학교의 지속적 시행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홍보, 국립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수강료 지원 등이다. 그밖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방과후학교와 사설교육기관의 강의를 다 받아야 하는 점(방과후학교는 주 2~3일만 실시, 방과후학교는 예·복습이 안됨, 학부모의 요구인 교과 프로그램만을 집중적으로 할 수 없음 등), 불규칙한 시간대로 인한 귀가 지도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IV. 방과후학교와 청소년 충효교실의 연계 활동

1. 연계 활동의 의의와 가능성

방과후학교와 충효교실은 그 운영 주체가 확실히 다르고 그밖에 교육 장소, 교육 내용과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외의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

- 17) 채은경(2006),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과후학교 혁신 연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순아(2006),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과후학교 혁신 연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석광일(2006),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도서지역의 학습기회 확대 방안", 「방과후학교 혁신 연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순선(2006),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한 학습력 신장", 「방과후학교와 교실수업 개선의 연계 방안 모색」,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는 별도의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통점은 단지 성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과 내용에서도 일부 나타난다. 이 공통점을 토대로 하여 서로 연계의 가능성과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시 말하면 각각이 갖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목적 달성에 유익하므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시 목적과 교육내용에서 보면 방과후학교가 더 포괄적이다. 충효교실은 방과후학교의 한 부분에 해당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방과후학교는 충효교실의 협력이 필요하고 충효교실은 방과후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방과후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방향의 대부분이 관련된다.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 중심 운영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확대한다,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창의성·특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단위학교에서 인정한 모든 강사 즉 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방학 및 토요일휴업일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그 대상을 희망하는 해당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교생, 학업중단 청소년, 성인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학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의 활성화, 지역 특색에 맞는 모델을 창출·확산, 학생의 선택권 확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들 중 특히 인성 관련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운영, 방학과 연계하여 운영, 대상의 확대, 학생의 선택권 확대 등은 충효교실이 갖고 있는 성과 및 장점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충효교실과의 연계를 통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충효교실의 성과와 장점으로는 교육적인 면에서 예절생활의 향상,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한자와 서예 등의 병행 실시, 학교 교육과의 관련성을 들 수 있고 그밖에 부수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점인 사회 유휴 인력의 활용, 방학 중 실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학교가 없는 마을에서도 실시 등이다. 그런가하면 충효교실은 방과후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충효교실이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학생 모집, 전문 강사의 초빙, 교재의 제작 혹은 구입 그리고 기타 학습 기자재의 확보, 교육 환경의 개선, 충분한 운영 경비의 확보 등을 해결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연계 활동 방안

연계 방안은 지역 노인들이 지역의 학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른 방안으로는 학교가 개설·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에 노인회에서 강사를 지원하

는 형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노인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나 시설 학원과는 다른 충효교실의 의의와 장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의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탁교육으로 충효교실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회가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충효교실의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무료 수강이 지켜지고 강사의 수급 및 교육과정(실시하는 일시, 기간, 시수 등), 교육내용과 방법 등은 노인회와 충효교실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특히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충효교실 운영비를 자치단체로부터 노인회의 사업비로 계속 지원 받아야 하고, 입학식, 수료식과 현장 체험교육 등에 크게 도움이 되는 학부모 그리고 마을회, 부인회, 청년회 등 지역 자생단체들의 자발적 봉사와 여러 형태의 지원도 유지되도록 한다. 이는 충효교실의 주요한 장점인 무료교육을 실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방과후학교의 운영 목표인 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의 사회화를 실현하는데 충효교실이 일조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록 노인회가 방과후학교로부터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충효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방과후학교로부터의 일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학교의 시설을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충효교실이 실시돼 온 장소인 대부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교육 활동에 불편한 점이 많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주변 환경이 부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내구성 기자재, 부대시설, 차량 등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지원은 학생을 모집하는데 학교가 협조해주는 것이다. 물론 충효교실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교육의 혜택을 받게 하려면 충효교실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모집에 협조해줘야 한다. 그밖에 학교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충효교실은 강사들이 자원 봉사를 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지만 최소한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는 자칫 그것이 보수의 성격을 띠게 되어 새로운 부작용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충효교실의 경우 현장 답사활동에 대한 경비가 따로 책정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이에 필요한 경비를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위탁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특이하고 어려운 문제는 한 학교에서 여러 노인회와 위탁 계약을 하게 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충효교실은 대개 리·동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정에서 학교가 없는 마을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학교가 여러 노인회와 위탁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혹시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 마을 단위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이래야만 충효교실의 장점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기대하고 있는 교육복지의 확충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학교는 한 프로그램에 여러 반을 편성하는 방식으

로 해서 운영될 것이다. 또한 학교가 소재해 있지 않은 마을에서는 강의 장소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기존처럼 사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하여 기존의 충효교실의 교육 방식이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교육 시기는 방학 중에 실시하고 역시 교육 기간과 교육 시수도 25일간을 전후로 하루에 2시간씩 총 50시간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내용은 예절을 익히는 학습, 한문학습, 서예학습, 현장 답사 학습, 체험학습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취하되 기본적인 예절과 사회생활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여 충효교실의 장점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예절교육은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예절과 현대의 에티켓과 매너를 동시에 다루는데 학생들이 그 중요성과 효용성도 알 수 있게 한다. 사회생활교육은 지역 명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우리 고장의 명소나 유적지, 중요 시설을 탐방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어른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갖게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한자와 서예를 병행하여 다른 교육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수요자의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것과는 달라져야 하는 것은 수요자가 원하더라도 방과후학교의 다른 프로그램과 겹치는 영어나 컴퓨터교육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 방법으로는 이론 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방법을 지양하고 체험과 다양한 탐구식 방법을 응용하도록 한다. 하루 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한 시간씩 나누어 다른 내용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여 지루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서 학교의 수업과는 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운용하여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충효교실의 장점이라 하겠다.

V. 맺 음 말

이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에 우리의 교육은 변화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의 요구 증대,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등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바로 “방과후학교”이다. 방과후학교는 정부에 의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행해온 “청소년 충효교실”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서로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과후학교와 충효교실은 그 운영 주체가 확실히 다르고 그밖에 교육 장소, 교육 내용과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외의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별도의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통점은 단지 성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과 내용에서도 일부 나타난다. 이 공통점을 토대로 하여 서로 연계의 가능성과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시 말하면 각각이 갖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목적 달성에 유익하므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시 목적과 교육 내용에서 보면 방과후학교가 더 포괄적이다. 충효교실은 방과후학교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방과후학교는 충효교실의 협력이 필요하고 충효교실은 방과후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계 방안은 지역 노인회가 지역의 학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른 방안으로는 학교가 개설·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에 노인회에서 강사를 지원하는 형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회가 학교로부터 위탁 받아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충효교실의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무료 수강이 지켜지고 강사의 수급 및 교육 과정(실시하는 일시, 기간, 시수 등),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은 노인회와 충효교실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특히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충효교실 운영비를 자치단체로부터 노인회의 사업비로 계속 지원 받아야 하고, 입학식, 수료식과 현장 체험교육 등에 크게 도움이 되는 학부모 그리고 마을회, 부인회, 청년회 등 지역 자생단체들의 자발적 봉사와 여러 형태의 지원도 유지되도록 한다. 아울러 방과후학교로부터의 일정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학교의 시설과 자재를 활용하는 것과 학생을 모집하는데 학교가 협조해주는 것, 그밖에 학교가 강사료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위탁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특이하고 어려운 문제는 한 학교에서 여러 노인회와 위탁 계약을 하게 되는 문제이다. 이 경우 한 학교가 여러 노인회와 위탁 계약을 맺어 마을 단위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이래야만 충효교실의 장점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기대하고 있는 교육복지의 확충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하여 기존의 충효교실의 교육 방식이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교육 시기는 방학 중에 실시하고 역시 교육 기간과 교육 시수도 25일간을 전후로 하루에 2시간씩 총 50시간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내용은 예절을 익히는 학습, 한문학습, 서예학습, 현장 답사 학습, 체험학습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취하되 기본적인 예절과 사회 생활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여 충효교실의 장점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예절교육은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예절과 현대의 에티켓과 매너를 동시에 다루는데 학생들이 그 중요성과 효용성도 알 수 있게 한다. 사회생활교육은 지역 명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우리 고장의 명소나 유적지, 중요 시설을 탐방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어른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갖게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한

자와 서예를 병행하여 다른 교육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수요자의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게 한다. 방과후학교의 다른 프로그램과 겹치는 영어나 컴퓨터교육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 방법으로는 이론 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방법을 지양하고 체험과 다양한 탐구식 방법을 응용하도록 한다. 교육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서 학교의 수업과는 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운용하여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 권성연(2007), “방과후학교의 성과 및 발전 방향”, 『2007 방과후학교 성과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김순아(2006),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과후학교 혁신 연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석광일(2006),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도서지역의 학습기회 확대 방안”, 『방과후학교 혁신 연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신순선(2006),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한 학습력 신장”, 『방과후학교와 교실수업 개선의 연계 방안 모색』,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 심은석(2006), “방과후학교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 『방과후학교 혁신연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양방주(2005), “제주지역 하계 청소년 충효교실의 예절교육 실태 연구”, 『도덕윤리과 교육』 제21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_____ (2006), “제주지역 하계 청소년 충효교실 예절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백록논총』 제8권 제1호,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2006. 8. 25), “방과후학교, 전체학생 중 60%참여”, 교육청소식(인터넷자료)
- _____ (2007. 3. 7), “방과후학교 운영, 사교육비 136억원 경감 효과 거뒀”, 교육청소식(인터넷자료)
- _____ (2007. 7. 31), “도교육청, 8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팀 선정”, 교육청소식(인터넷자료)
- 조난심(2006), “방과후학교와 교실수업 개선의 연계 방안 모색”, 『방과후학교와 교실수업 개선의 연계 방안 모색』,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 채은경(2006),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과후학교 혁신 연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